

무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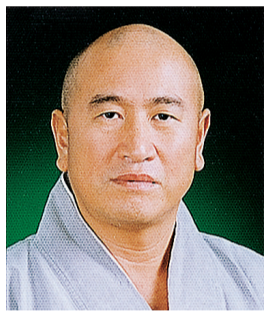
음식이 갖는 힘

밥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상징이자 기호이며, 우리 공동체의 구심점이기도 하다. 유난히 우리에게 밥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밥과 관련지어 말하거나 밥에 관한 일화들이 많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단식투쟁을 하고, 살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위해서 밥을 먹기도 한다.

드문 일이 되었다. 식구들이 밥을 같이 못 먹는 이유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 부부 맞벌이가 일반화되면서 엄마들이 직장 일을 하고, 이혼이 많아져 엄마 혹은 아빠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 꾸리느라 시간 맞춰 함께 밥 먹기가 어렵다.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원수처럼 틀어진 가족들에게 우선 같이 식사하라고 권한다. 몇 번 같이 식사하다 보면 아무리 사이 나쁜 가족들도 감정이 누그러진다는 것이다.

가족 식사의 이점은 정신건강에 대단히 좋다. 부모·형제와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지적으로 발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렇지



중상
(청계사 회주)

또 '식사하셨냐'는 인사로 상대의 안부를 묻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밥벌이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나중에 밥 한 끼 먹자.' 라는 말로 고마운 인사를 감을 하고, '밥심으로 산다.' 거나 또 누군가 일에 휘방을 놓으면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고 표현한다. 어디 그뿐일까. 누군가가 미우면 '국물도 없

가족도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 함께 먹는 '밥' 삶의 결빙 녹여

다. 거나, '같이 밥 먹기도 싫다'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 '식구' 나 '한술밥을 먹는 사람' 처럼 밥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의 회식문화는 유명하지 않던가. 이처럼 우리 민족은 밥에 대해서만큼 진정적이고, 진심이었으며, 또 경건했다.

많은 아이들에 비해 성격이 원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학업성적도 좋다는 결과를 보였다. 가족 간 유대감도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밥상머리 교육, 부모 못지않게 아이들도 배워서 온 가족이 대화할 기회는 식사 때가 거의 유일하다. 식탁에 주기적으로 둘러앉으면 부모는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가치관과 전통을 가르칠 수가 있다.

승가에서 다함께 하는 식사 발우공양 때, 장삼과 대가사를 착용하고 <소심경>을 외운다. <소심경>의 내용은 부처님의 일생을 요약한 것과 불보살의 명호를 외워 그 은혜를 기리고, 공양물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며, 아울러 아귀까지도 배려하면서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고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굳건히 한다. 음식이 갖는 신비로운 힘이다.

밥은 오래 집에서 먹는 것이고 너무도 당연하니 따로 지정하는 단어도 없었다. 지금은 그것을 '집' 자를 넣어 '집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당연하던 게 더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마스하고 정겨운 느낌, 그 원초적 사람 냄새로부터 우리 삶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 식구(食口)들이 더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는 가족 식사가 가물에 콩 나듯

수능 전 50일 반환점, 또 다른 시작

걱정, 근심 버리고 마음을 울려 기도하라



스님 기도에 맞춰 학업성취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는 사부대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일 앞둔 9월 27일 청계사 설립전에서 주지성행, 명종, 원덕스님, 수험생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진 기도를 봉행했다.

천수경 목경과 관음정근을 하며 일심으로 참회를 하고 원덕스님이 수험생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하며 축원을 할 때마다 학부모들은 진심을 다해 자녀의 합격 발원을 했다. 주지 성행스님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걱정, 근심을 버리고 기도의 목적인 오로지 생각해 진심으로 마음을 울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 마음이 수험생들에게 전해져 기도를 받는다. 50일 남은 반환점은 또 다른 시작이다. 기도하는 동안 맘을 편하게 가지고 힘써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 모든 수험생 자녀들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고 특별법문을 했다. 이어 신도회에서 준비한 수험생을 위한 단주를 학부모들에게 나눠주면서 주지스님의 참회진언 기도로 마무리했다. 청계사에서는 수능 전 21일 특별기도로 10월25일~26일 1박2일 경주 석굴암 철야기도, 불국사 새벽예불이 예정되어 있다.

(글:사진 주향진성)

생활의 지혜

이야기 백유경

⑨ 가난한 사람의 헛된 욕심

돈을 다 세기 전에 그 주인이 나타나

○.....이 이야기의 가난한 사람처럼 요즘 사람들도 쉽게 일확천금하고자 한다. 그리고는 당연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자포자기하고 만다.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실패 먹고 자고 놀고 즐기는데 써버린다. 자신의 재산이 비록 부자와 비교하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자신이 땅 흘리며 일해서 모은 귀한 재산이라는 것을 잊을 것이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적절하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정착되면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와 평등이다. 진정한 자유는 멋대로 행동하는 방종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질서를 지키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옛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큰 부자를 보고 그와 같은 재물을 갖고자 하였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조그만 재물마저 물속에 버리려고 하였다.

옆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 재물은 비록 적지만 늘릴 수도 있다. 그대의 앞날은

아직 멀었는데 왜 그것을 물속에 버리려고 하는가?"

<해설> 세상의 여러락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마음에 버리는 것은 항상 부족을 느낀다. 그러나 덕이 높은 이만큼 이익을 얻지 못한다. 나이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양을 받는 것을 보고, 생각으로 그이와 같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다가 그만 덕기를 집어치운다. 그것은 마치 여러락은 사람이 부자와 같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가 가진 재물마저 버리는 것과 같다.

○.....평등은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를 바르게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여 자신의 분수에 따라 자족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는 성숙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보시를 받습니다

기록하신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계사보 법보시를 받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50부:10,000원 100부:20,000원

*법보시 명단

- ♣ 서울구치소 박경선 50부, 박유진 150부
 - ♣ 안양교도소 일동포장기계 150부 김희용 50부, 조수환 50부
 - ♣ 수원구치소 김향수 50부, 김영현 50부 김민준 50부
 - ♣ 청주여자교도소 정종순 50부, 김윤호 50부
 - ♣ 경주 교도소 이갑숙 50부, 이근혁 50부 이고은 50부, 윤석호 50부
 - ♣ 여주교도소 손고은 50부, 김대희 50부
- 기업은행 109-058786-01-040 (예금주:청계사 출판부)

석굴암 철야 정진기도

- 일 시 : 10월 25~26일 수요일 오후 2시(무박2일) 인덕원 미가참치 앞 출발
- 장 소 : 경주 석굴암(철야기도 후 불국사 새벽예불)
- 동참금 : 20만원
- 철야기도 후 다라니 나눠드립니다.
- 동참 못 하신 분들은 절에서 나눠드립니다.
- 일반 신도님 신청가능, 후원만 올릴실 분 후원비 5만원
- 석굴암기도로 인해 청계사 사중철야기도는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안거 100일 기도

본 청계사에서 동안거 맞아 100일 기도를 다음과 같이 봉행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7(2023)년 11월 27일(음력 10월 15일) 월요일 사시
- 회 향 : 불기 2568(2024)년 2월 24일(음력 1월 15일) 토요일 사시
- 장 소 : 청계사 큰 법당
- 동참금 : 5만원
- 차량안내 : 오전 7시, 8시, 9시, 10시, 11시

학업(대학수능) 성취 회향기도

- 일 시 : 11월 16일 목요일 오전8시 40분 ~ 오후5시
-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영가 합동 천도제

본 청계사에서는 가을을 맞이하여 선망부모의 극락왕생과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는 합동 천도제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수희 동참하시어 참다운 수행 공덕을 쌓아 가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11월 15일 (음10월 3일) 수요일 10시
- 장 소 : 극락보전
- 동 참 금 : 30만원
- 계좌번호 : 109-058786-01-242 (기업은행 청계사)
- 연 락 처 : 신도회 총무 (010-6525-3425)
- 준 비 물 : 천도제 당일 접수대에서 영가 옷 찾아 올리세요.

가을 성지순례

지장회에서 주관하는 가을 성지순례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불법이 깃든 산사를 찾아 간절한 신심으로 부처님의 복덕과 선근 인연의 소중한 씨앗을 심을 성지순례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출발
- 순례지 : 백양사, 불갑사
- 동참금 : 6만원
- 출발장소 : 인덕원 진참치(구 오성갈비)앞
- 문 의 : 종무소(031)426-2221, 2348
- 담당자 010-2386-8050(회장 정성심) 010-3933-8647(총무 김시연)



마음따라 찾아가는 산사순례 113

한국불교 대표 종단 조계종 사찰은 전국에 3천 사암에 달 합니다. 이 사찰은 행정구역상 25교구로 구성되어 각 교구마다 본사가 설치되어 소속된 말사 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갑사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불갑산(516m) 기슭에 자리 잡은 사찰이며, 상사화로 유명한 곳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의 말사이다.

지장성지 ⑥ 불갑사

영광 불갑사 꽃무릇 ... 상상화 꽃길 속으로, 천년의 사랑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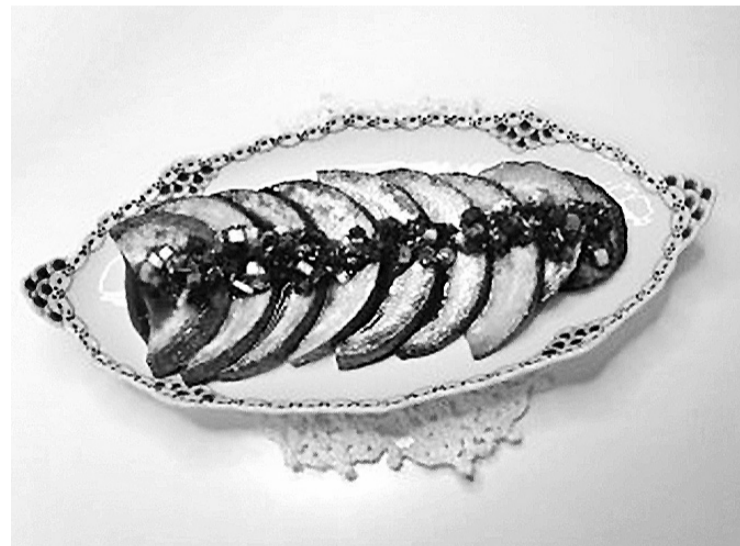
영광 불갑사 목조사천왕상은 나무 조각을 접목해 전체 형태를 만들고 동시에 머리카락이나 세부 장식 등은 흙으로 정교하게 빚어 소조상에서 목조상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기에 각진국사가 머무르면서 크게 중창하였는데 당시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물렀으며 사전(寺田)이 10리 밖까지 이어졌다.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 범람이 중창하였고 1634년에는 해릉이 중창하였는데, 여러 차례 중창을 거치면서 절의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다.

사찰음식 배워보기 들기름등근호박구이

*재료: 등근호박1개, 들기름 1T, 올리브오일1T, 소금약간 (양념장: 쪽파, 다진마늘 1/2, 맛간장 2T, 들기름1T, 고춧가루1/2T, 통깨)

- *만드는 법: 1.등근 호박을 반달모양으로 두툼하게 썰어 소금을 약간 뿌려준다. 2.절여진 호박을 키친 타올로 물기를 빼준다. 3.팬에 올리브오일, 들기름을 반반 섞어 중불에서 호박을 구워준다. 4.구워준 호박에 먹기 전 양념장을 뿌려준다.



삼국 신라 서기60년 8월 14일, 황금의 귀족에서 나온 어린아가가 왕의 명으로 태자에 책봉된다. 이름은 어린아가라는 뜻의 '알지'로 불리고, 성씨는 황금(金)을 뜻하는 '김(金)'이라 했다.

민족 '혼' 자주성 기록

삼국유사 속 불교이야기

2) 신라 미추왕

'죽현릉'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779년(제36대 혜공왕)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죽엽군으로 나라지키고 김유신의 혼령 달래

일어났다. 그러더니 갑옷에 무기를 든 40여명 군사가 김 장군의 뒤를 따라 죽현릉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능 속에서 무엇인가 하소연하는 듯 진동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고 삼국을 통일한 공이 있었습니다. 이제 흔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보호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지난 경술년 신의 자손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한 것은 임금의 저의 공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차라리 먼 곳으로 옮겨 다시는 나라를 위해 힘쓰지 않겠나 합니다.

청계사 정기법회 안내

- ◇ 초하루 법회 음력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회주 종상 큰스님 또는 주지스님 법문)
- ◇ 3일 신중기도 음력 매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 보름법회 음력 매월 15일 오전 10시 30분 (다라니주력기도)
- ◇ 지장재일 법회 음력 매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광명진언사경)
- ◇ 관음재일 법회 음력 매월 24일 오전 10시 30분(금강경독송)
- ◇ 어린이·청소년 법회 매월 2, 4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불교 대학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 불교 경전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 시민선원 매주 월, 수, 오후 2시, 저녁 7시 경내 선불장
- ◇ 마사회 법회 매월 첫째주 월요일 11시 정계사 설법전
- ◇ 서울구치소 법회 매주 수요일 서울 구치소
- ◇ 의왕경찰서 법회 매월 1회 의왕경찰서
- ◇ 새벽 예불 매일 새벽 4시
- ◇ 사시마지 기도 매일 오전 10시 30분
- ◇ 저녁예불 매일 저녁 6시 30분
- ◇ 문 의 종무소 (031)426-2221/426-2348 은행계좌: 109-058786-01-413 중소기업은행 (예금주: 청계사)

※ 차량안내 미가참치(구 오성갈비)앞에서 매일 오전 9시와 10시에 출발합니다. 초하루나 큰 법회(입춘, 초파일, 칠석, 동지)에는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수시로 운행합니다. 내려가는 차편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성행스님의 원각경 강설(14)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궁극적(窮極的) 경지로 불리는 '원각경(圓覺經)'은 중생 누구나 원각(圓覺)을 갖추고 있으며 그 원각(圓覺)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명(無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실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경전이다.

제3장 보안보살장(4)

*3-5 인연으로 화합하여 만들어진 모습 我今此身이 四大和合이라 所謂髮毛爪齒와 皮肉筋骨과 髓腦垢色은 皆歸於地하고 唾涕膿血과 津液涎沫과 痰淚精氣와 大小便利는 皆歸於水하고 煖氣는 歸火하고 動轉은 歸風하나니 四大各離하면 今者安身이 當在何處요 卽知此身이 畢竟無體어늘 和合爲相이 實同幻華보다 四緣이 假合하야 妄有六根하니 六根四大가 中外合成어늘 妄有緣氣가 於中積聚하야 似有緣相이니 假名爲心이라

*講說 몸이나 마음이나 모두 실체가 없는 무지개 같은 것인데,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기 몸과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근본 번뇌인 무명(無明)이라 합니다. 무명은 진리에 대한 무지로서 세상의 모든 잘못이 이 무명에서 나옵니다. 몸과 마음이 허깨비인데 그것을 모르고 진자인 줄 알아서 몸과 마음에 애착을 갖게 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수화풍이 모여서 몸을 이루었고, 이 네 가지는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내것으로 집착하는 것이 무명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몸을 '참 나'라 여겨서는 안 되고 다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연 속에 내 생각과 나와 내 것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도 몸이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환이듯, 마음도 인연의 소산인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과 왼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인과 연이 그 순간 부딪치지 않는다면 지금 그 마음은 다른 형태의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그 순간의 마음이지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 순간 조건에 의해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져 버립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단지 그렇게 일어나서 사라질 뿐이지 나의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즐거움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소산으로 생긴 행위와 그 마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 3-6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善男子야 此虛妄心이 若無六塵이면 則不能有며 四大가 分解하면 無塵可得이니 於中緣塵이 各歸散滅하면 畢竟無有緣心可見이니라

*講說 '육진을 인연한 그림자를 나의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고, '환(幻)인 줄 알면 곧 여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숨에 여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 몸을 관(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대(四大)가 허망하여 각각 흩어져 사라지고, 안으로 육근(六根)이 이미 없다면 밖으로 상대할 육진(六塵) 또한 없으니, 육근과 육진이 사라지면 대상을 조건으로 하는 마음도 역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또한 허망한 것입니다.

알립니다

청계사보는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를 기다립니다. 또한 '청계사보'를 함께 만들 신심 있는 출판부원을 찾습니다. 신문제작과 법보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문의 : 청계사 출판부
- 부장 : 조여래장 010-8382-2125
- 총무 : 주향진성 010-3745-4525

메일주소 : cksb108@hanmail.net

